

2022년도 제14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14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22. 10. 20(목) 11:00
- 회의장소 : 메이플플레이스호텔 컨퍼런스룸 1

2022도 제14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62작품으로, 초연부문 30작품, 재연부문 32작품이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9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10%)에 두었으며, 다양한 형태(작품성향, 구성 등)의 창작곡 발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악보(블라인드심사), 재연곡의 경우에는 제출한 영상 및 음원자료를 참고자료로 하여 심의위원 개인별 심사 진행 후, 최종작품 선정을 위한 토론 심의를 진행하였다.

아창제는 작곡콩쿠르가 아니고 기획연주회를 통해 창작곡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페스티벌로, 오늘 우리나라 창작음악계의 현 단계를 진단하고 이 시대 작곡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는 연주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이번 심사에서 중요하게 평가한 항목은 작품에서 보이는 작가정신, 시대성, 기보의 정확성 및 창의적인 관현악 접근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초연과 재연을 포함하여 다양한 음악 양식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열정이 가득한 작품이 많아 심사를 통해 선정 작품을 결정해야하는 점은 심사위원으로서 상당한 부담이었다. 시대성에서 벗어난 작품들도 있었지만 그 또한 하나의 양식으로 바라보았다. 초연 작품은 국악기를 포함한 솔로 악기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성악과 소규모 오케스트라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출품된 점이 이번 공모 작품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일부 작품에서 작품설명이 부족하여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기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주법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많은 수의 성의 있는 곡들을 보았다. 혹시나 작품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나 하는 걱정의 마음으로 여러 번 살펴보았다. 올해 선정된 5작품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자신의 음악 어법을 자신의 작품에 담으려는 노력이 보이는 작품들이다.

제14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심의위원 일동